

2020년 8월 4주 주간 국제유가동향

1. 국제 원유시장 동향

1) 가격 추이

○ 금주 Brent, WTI, Dubai, Oman 가격 모두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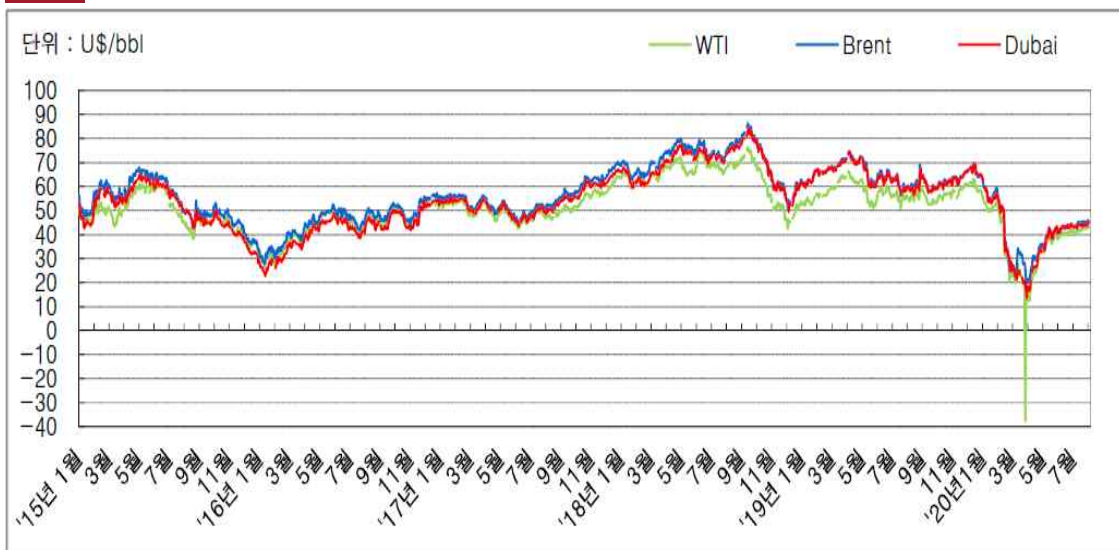
표 1

국제 원유 가격 추이

(단위: U\$/bbl)	2019년	2020년 7월	2020년						전주비
			8.20(목)	8.21(금)	8.24(월)	8.25(화)	8.26(수)	8.27(목)	
Brent	64.16	43.22	44.90	44.35	45.13	45.86	45.64	45.09	+0.19
WTI	57.04	40.77	42.58	42.34	42.62	43.35	43.39	43.04	+0.46
Dubai	63.53	43.80	43.89	43.96	43.78	44.34	44.83	45.01	+1.12
Oman	63.91	43.41	44.17	44.25	44.06	44.59	45.13	45.24	+1.07

그림 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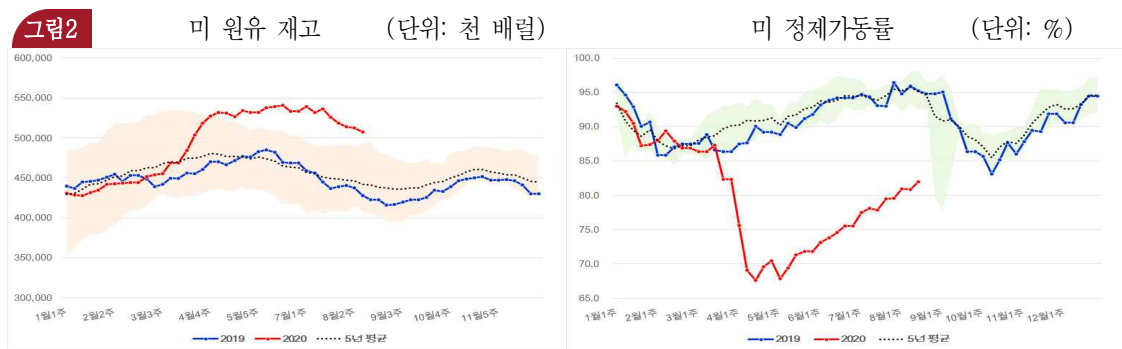
국제 유가 추이



2) 부문별 유가 변동 요인 분석

- (지정학) 미국-이란 갈등 지속 등은 상승요인으로, 리비아 휴전 선언 소식 등은 상승폭 제한 요인으로 작용
 - 이란 로하니 대통령은 25일 미국의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 정책은 100% 실패했고, 미국이 이란과 합의를 원한다면 먼저 JCPOA 탈퇴에 대해 사과하고 핵 합의에 복귀해야 한다고 발언
 - UN 안보리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25일 미국의 이란에 대한 모든 UN 차원의 제재 복원 요구에 대해 15개국 이사국 대부분이 동의하지 않아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밝힘
 - 한편, 이란 국영TV에 따르면 국제원자력기구(IAEA) 사무총장 Rafael Grossi가 24일 이란에 도착했으며 이란이 지난 몇 달간 대치했던 과거 핵 시설 2곳에 대한 IAEA의 접근을 허용했다고 26일 밝힘
 - 그리스와 동지중해 자원개발 관련 갈등을 빚고 있는 터키의 대통령은 26일 터키는 흑해, 에게해, 지중해에서의 권리 수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취할 것이며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 발언
 - 터키 해군은 27일 동 지역에서 9.1~2일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으며, 앞서 26일 프랑스는 이탈리아, 그리스, 키프로스과 함께 군사훈련에 참가할 것이라 밝히는 등 동지중해 긴장 고조
 - 리비아 트리폴리 정부(GNA)는 21일 휴전을 선언하고 리비아 동부 의회 지도자들 역시 적대행위 중단 호소했으며, 리비아 국영석유회사(NOC)는 동 제안을 지지하면서도 병력이 석유시설에서 철수해야 수출 재개가 이뤄질 것이라 밝힘
 - GNA의 Fayez al-Sarraj총리는 리비아 영토 전역에 모든 전투 작전을 즉각 중단하라고 군부에 지시했다고 발언
 - 하지만 리비아 동부군벌(LNA)은 23일 GNA의 발표는 언론 플레이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며 Sirte에서 LNA를 타깃으로 병력 증대와 군 장비가 추가되고 있고 이들이 Sirte와 Jufra에서 공격을 해온다면 이에 대응할 것이라 밝힘
- (석유 수급) 미국 멕시코만 생산 차질, 미 원유재고 감소 등은 상승요인으로, 미 원유 시추기수 증가, 미국 자동차 주행거리 감소, 인도 원유수입 감소 등은 상승폭 제한요인으로 작용
 - Marco, Laura 열대성 폭풍과 허리케인이 연달아 미국 멕시코만으로 접근하자 멕시코만 석유생산의 84%(1.56백만b/d)가 중단되고 직원 대피 조치(멕시코만은 미국 원유 생산의 약 17% 차지하며 텍사스-미시시피 연안에는 미국 정제능력의 45%가 포진)

- 한편, 당초 예상보다 허리케인 Laura 위력이 약했고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서 생산이 조기에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와 허리케인으로 약 2.33백만b/d(미국 전체 정제능력의 약 12%) 정제규모의 시설이 가동을 중단은 유가에 하방 압력을 가함
- 21일 기준 미 원유재고는 수출증가폭이 18개월래 최대치를 기록하고 정제가동률이 3월 이후 최고치인 82%로 상승하면서 전주대비 4.7백만 배럴 감소한 507.8백만 배럴을 기록(5주 연속 감소로 4월 이후 최저치) (미 에너지정보청, EIA)
- Baker Hughes에 따르면 21일 기준 미국의 원유 및 가스 시추기 수가 10기 증가한 254기로 3월 이후 첫 증가세를 보임(원유 시추기 수는 11기 증가한 183기로 1.17일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)
- 미 교통부가 밝힌 6월 주행거리는 2,447억 마일로 정부의 이동제한조치로 인해 전년동월대비 365억 마일(13%) 감소했으며, 인도 석유부는 7월 인도의 원유 수입이 전년동월대비 2.92백만b/d(36.4%) 감소해 2010.3월 이후 최저치라고 밝힘



- (국제 금융) 미-중 고위급 전화회담, 미 연준 의장 발언 등은 상승요인으로, 미국 경제 더블딥 침체 우려 등은 상승폭 제한요인으로 작용
- 24일, 미 무역대표부(USTR) 대표와 미 재무장관은 중국의 류허 부총리와 1단계 무역합의 이행 관련 논의 차 전화통화를 가졌고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진전을 확인했으며 합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협력기로 합의했다고 밝힘
- 27일 미 연준 파월의장은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해 장기간에 걸쳐 평균 2% 물가상승률을 목표로 해 2% 목표를 밀둔 후에는 일정기간 2%를 상회하더라도 연준이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혀 낮은 금리를 당분간 유지할 것이란 의사를 표명했고 강한 고용시장 촉진에 매우 집중하겠다고 발언
- 미국의 2분기 GDP 속보치가 잠정치(-32.9%)보다 개선된 -31.7%로 발표
- 전미실물경제협회(NABE)의 전문가 235명 중 80%가 미국 경제의 더블딥 침체 가능성을 25%로 예상했고 2/3은 2월부터 시작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판단

2. 싱가포르 석유시장 동향

1) 가격 추이

○ 금주 싱가포르 휘발유, 경유 가격 상승, 등유 가격 하락

표 2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 추이(FOB 가격)

(단위: U\$/bbl)	2019년	2020년 7월	2020년						전주비
			8.20(목)	8.21(금)	8.24(월)	8.25(화)	8.26(수)	8.27(목)	
휘발유(92RON)	69.53	44.81	47.69	47.82	47.79	48.46	48.36	48.67	+0.98
등유	77.26	43.94	43.12	43.18	43.40	43.79	43.72	42.62	-0.50
경유(0.001%)	78.20	50.16	49.22	48.94	49.10	49.74	50.00	49.53	+0.31



2) 석유제품 재고 추이

○ 8.26(수) 기준 싱가포르 경질제품, 중질제품 재고 감소, 중간유분 재고 증가

표 3 싱가포르 석유제품 재고 추이

구 분		2020.8.19(A)	2020.8.26(B)	증 감 전주비(B-A)
재 고 (천배럴)	경 질 제 품	14,830	13,643	- 1,187
	중 간 유 분	14,192	14,362	+ 170
	중 질 제 품	25,485	23,131	- 2,354

* 출처 : 싱가포르 International Enterprise(IE)

* 경질제품(Gasoline, Reformate, Naphtha 등 포함), 중간유분(Kerosene, Gasoil 등 포함), 중질제품(HSFO, LSFO, LSWR 등 포함, Bitumen 제외)